

우리금융그룹

2021-02

금융시장 브리프

2021. 02. 04.

- 1월 단기 급등에 따른 가격 부담으로 위험자산 상승폭이 둔화되었으나, 코로나 백신 보급에 의한 경기회복 기대를 반영하여 2~3월 중 국내외 국채금리가 소폭 상승하고 주요국 통화와 주가는 완만한 강세기조를 나타낼 전망
 - 한은과 미 연준은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동결(한국 0.50%, 미국 0.25%)
 - 국고채 금리는 4차 재난지원금에 따른 추경 가능성, 실물경기 개선 기대를 반영하여 완만한 오름세(국고 3년물 1월말 0.97% → 2월말 1.00% → 3월말 1.01%)
 - 선진국 국채금리도 경기 회복 기대, 확장적 재정운용에 따른 발행물량 증가로 소폭 상승(미국채 10년물 1월말 1.07% → 2월말 1.09% → 3월말 1.11%)
 - 원화는 국내 수출경기 회복세, 경상수지 흑자 기조, 위안화 절상과의 동반 흐름으로 강세압력이 우세(원/달러 1월말 1,119원 → 2월말 1,110원 → 3월말 1,100원)
 - 주요국 통화는 미·중갈등 완화 기대, 위험자산에 대한 매수 재개로 달러화 대비 강세
 - 한·미 주가지수는 기업실적(특히 반도체 등 IT 업종) 개선, 풍부한 시중 유동성을 배경으로 오름세 지속(KOSPI 1월말 2,976 → 2월말 3,100 → 3월말 3,120)

작성자: 경제·글로벌연구실 허문종 연구위원(02-2173-0568) 김진희 선임연구원(02-2173-0585) 이다은 연구원(02-2173-0578)

박수빈 조사원(02-2173-0556)

책임자: 경제·글로벌연구실 권영선 실장(02-2173-0569)



I. 2~3월 금융시장지표 전망

1. 금리

가. 국내금리

- 한국은행은 2.25일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현 수준(0.50%)에서 동결할 전망
 - 수출 개선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고용·소비의 회복이 지연되고 있어 기준금리를 당분간 현 수준에서 유지
 - * 이주열 총재는 1월 금통위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완화적인 통화정책 기조를 전환 하는 것에 대해 현재는 고려할 사항이 아니라고 언급
 - * IMF(1.26일)는 글로벌 경제가 코로나 확산과 봉쇄조치로 올해 초 둔화되겠지만, 백신· 치료제 보급 확대로 2분기에는 경기 모멘텀이 강화될 것으로 예측하고 2021년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조정(전세계 $5.2\% \rightarrow 5.5\%$, 한국 $2.9\% \rightarrow 3.1\%$)
- 국고채 3년물 금리 소폭 상승 전망: 1월말 0.97% → 2월말 1.00% → 3월 말 1.01%
 - 백신 접종에 의한 경기 개선 기대, 4차 재난지원금(20조원 내외 규모로 관측) 논의에 따른 추경(국채 발행물량 증가) 가능성으로 국고채 3년물 금리의 상 승압력이 점증
 - 다만 한국은행의 적극적인 정책대응(국고채 단순매입, 사전매입 공표 등), 기 관·외국인의 국채매입 수요로 금리 상승폭이 제한
 - * 정부는 올해 2월 백신 접종을 시작으로 9월까지 전국민의 70%를 대상으로 1차 접종을 마칠 계획
- 국고채 10년물 금리 소폭 상승 전망: 1월말 1.77% → 2월말 1.79% → 3월 말 1.80%
 - 경기 개선 기대, 추경 편성(국채 발행물량 증가) 가능성으로 장기 금리 상승 흐름이 지속되어 장단기(10년-3년물) 금리 스프레드가 일시적으로 80bp를 상회할 여지
 - 금리차가 2014년 이후 최대로 벌어짐에 따라 추가 금리 상승폭은 제한적
 - * 10년-3년 금리 스프레드(bp): 2014.1.8일 79 → 2015.6.17일 76 → 2019.8.28일 6(최소) → 2021.1.29일 80(최대)

국내금리 전망

	1 10 1 20											
항목	단위	2020	2021(F)	2020.12월	1월	2월(F)	3월(F)					
기준금리	기말, %	0.50	0.50	0.50	0.50	0.50	0.50					
국고채 3년	기말, %	0.97	1.10	0.97	0.97	1.00	1.01					
- 국고채 10년	기말, %	1.72	1.75	1.72	1.77	1.79	1.80					

주: 2021년말 전망치는 '우리금융그룹 거시경제·금융시장지표 전망'(2021.1.22일) 기준 자료: Bloomberg, 우리금융경영연구소

* 1월 전망에 대한 평가(A등급1))

- 1월말 국고채 3년 금리는 0.97%로 전망치(0.99%)를 소폭 하회
- 미국 등 주요국의 금리 상승, 4차 재난지원금 논의에 따른 공급부담에도 불구하고 월말 위험자산가격이 조정을 받으며 국채금리가 반락

나. 해외금리

- 미 연준은 3.16~17일 FOMC에서 기준금리를 동결(0.25% 상한)할 전망
 - * 파월 연준 의장은 1월 FOMC(26-27일)에서 통화정책 정상화(테이퍼링 또는 금리인상) 논의는 현재로써 시기상조이며 적정시점이 도래하더라도 시장과 충분히 의사소통하고 예측가능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언급
 - * 연준은 작년 12월 FOMC에서 물가상승률이 2%에 도달하는 시점을 2023년으로 예측하고, 금리전망 점도표에서 연준위원 17명 중 16명이 2022년까지 금리 동결을 제시
-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 소폭 상승 전망: 1월말 1.07% → 2월말 1.09% → 3 월말 1.11%
 - 바이든 행정부의 대규모 경기부양책과 옐런 재무장관의 재정지출 확대 언급, 백신 보급에 따른 경기회복 기대 등이 금리 상승요인으로 작용
 - 다만, 최근 코로나 확산에 따른 소비·고용시장의 회복세 둔화, 부양책의 지연· 축소 가능성이 금리 상승폭을 제한할 것으로 예상
 - * 바이든 대통령이 코로나 대응을 위해 1.9조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안을 의회에 제안하고 옐런 재무장관도 재정지출 확대를 적극 지지하고 있으나, 공화당 일부에서는 9천억달러 부양책이 통과된지 한 달만에 대규모 부양책을 추가 실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반대 의사를 표시

¹⁾ 대표 금리지표(국고채 3년)의 실제치와 전망치 간 격차가 ±1bp 이하는 S등급, ±3bp 이하는 A등급, ±5bp 이하는 B등급, ±5bp 초과는 C등급으로 평가

- * 미국 소매판매는 10월 이후 감소세를 지속(2020.12월 전월대비 -0.7%)하고, 12월 비농가 일자리도 8개월 만에 감소(전월대비 -14만개)하는 등 코로나 재확산 영향이 심화
- 독일 국채 10년물 금리 소폭 상승 전망: 1월말 -0.52% → 2월말 -0.50% → 3월말 -0.48%
 - 최근 코로나 재확산과 봉쇄조치 강화에도 불구하고, 백신 접종과 EU부흥기 금(7,500억유로, EU 전체 GDP의 6%) 투입에 따른 경기회복 기대를 반영하여 국채금리가 상승
 - * 독일 정부는 전국적인 봉쇄조치를 2.14일까지 연장하고, 3.15일까지 별다른 사유 없이 직원들에게 재택근무를 못하게 하는 기업에 대해 최대 5천유로의 벌금을 부과할 예정
 - * ECB는 1.21일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통화정책 완화기조를 유지하기 로 결정
- 영국 국채 10년물 금리 소폭 상승 전망: 1월말 0.33% → 2월말 0.35% → 3 월말 0.37%
 - 최근 변이 바이러스 출현으로 코로나 통제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나, 상 대적으로 빠른 백신 접종 속도를 감안할 때 국채금리는 완만한 상승흐름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
 - * 영국은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봉쇄조치 강화로 경기둔화 우려가 커지면서 1월 PMI(종합)가 40.6으로 전월대비 9p 급락
 - * 1.28일 현재 영국의 100명당 백신 접종 횟수는 11.4회로 전세계에서 4번째로 높은 수 준(1위는 이스라엘 44.7회)
- 일본 국채 10년물 금리 소폭 상승 전망: 1월말 0.05% → 2월말 0.06% → 3월말 0.07%
 - 최근 코로나 재확산에도 불구하고, 일본은행(BOJ)의 수익률곡선관리 정책(10 년물 금리를 0% 내외에서 유지) 완화 가능성으로 금리는 완만하게 상승
 - * 일본 정부는 최근 코로나 확산세가 심화됨에 따라 여행 지원정책(Go to Travel)을 중단하고 1.31일까지 비즈니스 목적을 제외한 외국인의 신규입국을 제한
 - * 1월 BOJ 정책회의에서 '지속가능한 통화정책을 위해 국채금리의 변동성을 좀 더 허용해 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향후 수익률곡선관리 정책의 완화 가능성이 대두

해외금리 전망

항목	단위	2020	2021(F)	2020.12월	2021.1월	2월(F)	3월(F)
미국 기준금리	기말, %	0.25	0.25	0.25	0.25	0.25	0.25
미국 국채 10년물	기말, %	0.91	1.25	0.91	1.07	1.09	1.11
독일 국채 10년물	기말, %	-0.57	-0.40	-0.57	-0.52	-0.50	-0.48
영국 국채 10년물	기말, %	0.20	0.45	0.20	0.33	0.35	0.37
일본 국채 10년물	기말, %	0.03	0.05	0.03	0.05	0.06	0.07

주: 2021년말 전망치는 '우리금융그룹 거시경제·금융시장지표 전망'(2021.1.22일) 기준

자료: Bloomberg, 우리금융경영연구소

2. 환율

- 원/달러 환율 소폭 하락(원화 강세) 전망: 1월말 1,119 → 2월말 1,110 → 3 월말 1,100
 - 최근 외국인의 국내증시 순매도에 따른 원화 약세에도 불구하고, 국내 수출 경기 회복세, 경상수지 흑자 기조, 위안화 절상과의 동반 흐름으로 원화는 강 세압력이 다소 우세
 - * 외국인의 국내증시 순매수 규모(억원): 2020.12월 -6,574 → 2021.1월 -58,333
 - * 통관수출(전년동월대비, %): 2020.11월 4.1 → 12월 12.6 → 2021.1월 11.4
 - * 무역수지 흑자(억달러): 2020.11월 59.0 → 12월 67.7 → 2021.1월 39.6
- 위안/달러 환율 소폭 하락(위안화 강세) 전망: 1월말 6.43 → 2월말 6.42 → 3월말 6.41
 - 중국의 견조한 경기 개선세, 미·중 갈등 완화 기대, 인민은행의 통화긴축 가능성이 위안화에 강세압력으로 작용하겠으나 외환당국의 시장개입에 대한 경계심리가 강세폭을 제한
 - * 중국 인민은행의 마췬 통화정책위원은 현재 중국 내 자산시장의 거품이 비교적 심각하며 통화정책을 긴축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고 언급. 관련하여 중국 인민은행은 최근 연일 공개시장조작(역RP 조작)을 통해 시중 유동성을 일부 회수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
- 엔/달러 환율 소폭 하락(엔화 강세) 전망: 1월말 104.7 → 2월말 104.5 → 3 월말 104.3
 - 최근 코로나 재확산 우려에도 불구하고 확장적 재정정책, 글로벌 경기 개선에 따른 수출경기 회복, 외국인의 일본 주식 투자자금 유입 증가 등에 힘입어 엔

화는 강세압력이 다소 우세

- * 일본의 코로나 일일 신규 확진자(7일 이동평균, 명): 1.12일 6,446 → 1.31일 3,467
- * 1.28일 19.2조엔 규모의 3차 추경안(19.2조엔)이 상원(참의원)을 통과
- * 일본 수출(통관기준, 전년동월대비): 20.10월 -0.2% → 11월 -4.2% → 12월 2.0%
- 달러/유로 환율 소폭 상승(유로화 강세) 전망: 1월말 1.2137 → 2월말 1.2150 → 3월말 1.2170
 - 최근 코로나 재확산과 ECB의 완화적인 통화정책에도 불구하고 영국-EU의 미래관계 협상 타결, EU 경제부흥기금 집행,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유로 주식 시장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금 유입으로 유로화는 소폭 강세

주요국 화율 전망

항목	단위	2020	2021(F)	2020.12월	2021.1월	2월(F)	3월(F)
원/달러	기말, 원	1,087	1,080	1,087	1,119	1,110	1,100
위안/달러	기말, 위안	6.53	6.40	6.53	6.43	6.42	6.41
엔/달러	기말, 엔	103.0	103.0	103.0	104.7	104.5	104.3
달러/유로	기말, 달러	1.228	1.220	1.2280	1.2137	1.2150	1.2170

주1: 2021년말 전망치는 '우리금융그룹 거시경제·금융시장지표 전망'(2021.1.22일) 기준 주2: 20.12월 원화는 12.30일 기준, 원화를 제외한 나머지 통화는 12.31일 기준 종가

자료: Bloomberg,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주요국 통화대비 원화 화율 전망

항목	단위	2020	2021(F)	2020.12월	2021.1월	2월(F)	3월(F)
원/위안	기말, 원	166.5	168.8	166.5	171.4	172.9	171.6
원/100엔	기말, 원	1,054	1,049	1,055	1,069	1,062	1,055
원/유로	기말, 원	1,334	1,318	1,335	1,358	1,349	1,339

주1: 2021년말 전망치는 '우리금융그룹 거시경제·금융시장지표 전망'(2021.1.22일) 기준 주2: 20.12월 원화는 12.30일 기준, 원화를 제외한 나머지 통화는 12.31일 기준 종가

자료: Bloomberg, 우리금융경영연구소

* 1월 전망에 대한 평가(B등급)²⁾

- 1월말 원/달러 환율은 1,119원으로 전망치(1,085원)를 상회
- 수출경기 회복, 경상수지 흑자, 위안화 절상에 따른 원화 절상요인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국내증시 순매도로 원화가 약세로 전환

²⁾ 대표 환율지표(원/달러)의 실제치와 전망치 간 격차가 ±1% 이하는 S등급, ±3% 이하는 A등급, ±5% 이하는 B등급, ±5% 초과는 C등급으로 평가

3. 주가

■ KOSPI 소폭 상승 전망: 1월말 2,976 → 2월말 3,100 → 3월말 3,120

- 반도체·IT 기업의 실적 개선 기대, 추가 재정지원 논의, 풍부한 시중 유동성에 따른 개인들의 매수세로 주가 상승압력이 우세하나, 국내외 증시의 밸류에이션 부담, 금리 오름세로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
 - * 코스피 개인 순매수(조원): 2020.11월 -2.8 → 12월 +3.7 → 2021.1월 +22.3
 - * 12개월 선행 PER(배): 2020.12.30일 13.5 → 2021.1.25일 14.7 → 1.29일 13.5
- 국내 은행주는 외국인의 순매수 전환, 시중금리 상승세에도 불구하고 배당과 대출 관련 규제로 소폭 반등에 그칠 전망
 - * 1.27일 금융위원회가 의결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은행 및 은행지주 자본관리 권고 안'에 따르면, 은행권의 배당성향을 20% 이내로 제한

■ KOSDAQ 소폭 상승 전망: 1월말 929 → 2월말 980 → 3월말 990

- 풍부한 시중 유동성, 바이오·IT 기업의 실적개선 기대로 주가 상승압력이 우세하나, 코스피 대형주 중심의 개인 자금 유입, 밸류에이션 부담, 공매도 재개 가능성으로 변동성이 일시적으로 커질 여지
 - * 코스닥 개인 순매수(조원): 2020.11월 +0.6 → 12월 +0.3 → 2021.1월 +3.5
 - * 1.19일 기재부·금융위가 발표한 '2021년 업무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국내 주식시장 안 정성을 높이기 위해 연기금의 코스닥 투자 비중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 * 금융당국이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확대 지원 관련 시스템을 6월까지 개발하기로 계획함에 따라 시장에서는 공매도 금지조치 기한(3.15일)이 3개월 추가 연장될 것으로 관측

■ S&P500 소폭 상승 전망: 1월말 3,714 → 2월말 3,800 → 3월말 3,820

- 2월 추가 부양책 통과 기대, 완화적 통화정책 지속으로 주가 상승흐름이 이어지겠으나, 코로나 확산에 따른 경기회복 지연, 밸류에이션 부담, 부양규모 축소 가능성이 상승폭을 제한
 - * 미국 헤지펀드(공매도 투자자)에 대응한 개인투자자의 집중 매수로 단기 급등한 소형주 (예: 게임스톱)에 대해 로빈후드(온라인 주식 중개업체)가 주식거래를 일시적으로 제한 (1.29일)하는 등 일련의 사태로 주가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시장 참가자들이 이를 증시 과열의 징후로 인식

국내 주가 전망

항목	단위	2020	2021(F)	2020.12월	2021.1월	2월(F)	3월(F)
KOSPI	기말	2,873	3,200	2,873	2,976	3,100	3,120
은행업 주가지수	기말	1,557	1,650	1,557	1,459	1,500	1,520
KOSDAQ	기말	968	1,000	968	929	980	990
S&P500	기말	3,756	3,900	3,756	3,714	3,800	3,820

주: 2021년말 전망치는 '우리금융그룹 거시경제·금융시장지표 전망'(2021.01.22일) 기준 자료: Bloomberg, 우리금융경영연구소

※ 1월 전망에 대한 평가(S등급)3)

- 1월말 KOSPI는 2,976으로 전망치(2,980)에 부합
- 대규모 개인 투자자금 유입에 힘입어 사상 최고치(1,25일 3,209)를 기록했던 주가지수는 단기 급등에 따른 차익실현 매물로 월말 3,000 이하로 하락 조정

³⁾ 대표 주가지수(KOSPI)의 실제치와 전망치 간 격차가 ±1% 이하는 S등급, ±3% 이하는 A등급, ±5% 이하는 B등급, ±5% 초과는 C등급으로 평가

1월중 국내금리 동향

■ 한국은행은 1.15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현 수준(0.50%)에서 동결

- 금통위는 국내 경제 회복세가 완만한 가운데 수요측면의 물가상승압력도 낮을 것으로 예상하여 통화정책 완화기조를 유지할 것임을 재확인
 - * 이주열 총재는 금통위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완화적인 통화정책 기조를 전환하는 것에 대해 현재는 고려할 사항이 아니라고 언급

■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전월말 대비 보합(0.97% → 0.97%)

-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주요국의 코로나 재확산으로 1월초 0.936%까지 낮아졌으나, 미국 등 주요국의 국채금리 상승과 국고채 발행물량 확대 가능성이 반영되어 1.26일 1.01%까지 상승한 후 월말 0.97%로 하향조정 마감
 - * 1.5일 미국 조지아주 상원 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블루웨이브)함에 따라 바이든 행정 부의 추가 부양책에 대한 기대로 미 국채금리에 상승압력이 가중
 - * 시장에서는 코로나 방역강화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법제화 가 검토단계에 들어가면서 향후 재원 마련용 국채 발행물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

■ 국고채 10년물 금리는 5bp 상승(1.72% → 1.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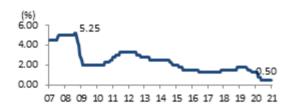
- 1월중 1.71% 내외에서 등락을 거듭하던 국고채 10년물 금리는 미국 등 주요 국의 국채금리 상승과 소상공인 손실보상 법제화에 따른 국채 발행물량 확대 가능성으로 월말 상승폭이 확대
 - 국고채 10년-3년물간 금리 스프레드는 1월말 80bp까지 확대
 - * 10년-3년 금리 스프레드(bp): 2020.1.2일 31 → 7.1일 56 → 20201.1.29일 80

국내금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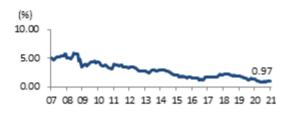
		단위	1.29일			변화폭(bp)		
		근귀	종가	1개월 전	3개월 전	6개월 전	YTD	1년 전
	기준금리(기말)	%, bp	0.500	0	0	0	0	-75
한국	통안채(1년, 기말)	%, bp	0.680	-3	-1	8	-3	-58
연독	국고채(3년, 기말)	%, bp	0.972	0	4	18	0	-34
	국고채(10년, 기말)	%, bp	1.765	4	21	47	4	20

자료: Bloomberg, 우리금융경영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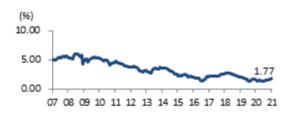
한은 기준금리(월간)



국고채 3년물(월간)



국고채 10년물(월간)



기준금리와 국고채 금리(일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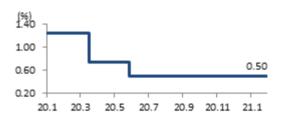


한국·미국 국채 10년물 금리차(일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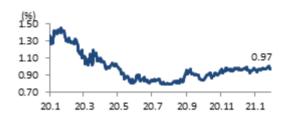


주: 2021.1.29일 기준, 자료: Bloombe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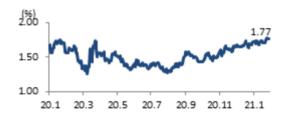
한은 기준금리(일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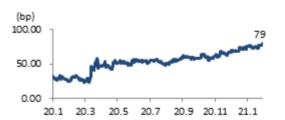
국고채 3년물(일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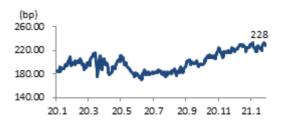
국고채 10년물(일간)



장단기 금리차(국고채 10년-3년, 일간)



한국·독일 국채 10년물 금리차(일간)



1월중 해외금리 동향

- 미 연준은 1.26~27일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0.25% 상한)를 동결(만장일 치)하고, 채권매입규모(국채 800억 달러 이상, 정부기관 MBS 400억 달러 이상)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겠다고 발표
-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는 전월말 대비 16bp 상승(0.91% → 1.07%)
 - 바이든 행정부의 대규모 부양책 계획, 연준의 테이퍼링 가능성 등으로 국채금 리가 1.11일 1.15%까지 상승하였으나, 이후 파월 의장의 비둘기적 발언과 고 용·소비 등 내수 부진 등으로 반락
 - * 1.14일 조 바이든 대통령은 1.9조억 달러 규모의 코로나19 대응 경기부양안을 제시
 - * 1.15일 파월 연준 의장은 경제, 인플레이션이 고용 목표에 도달하지 못한 상황에서 채 권매입 축소를 말하기는 이르다며 테이퍼링 가능성을 일축
- 독일 국채 10년물 금리는 5bp 상승(-0.57% → -0.52%)
 - 코로나 재확산으로 역내 봉쇄조치가 강화되면서 더블딥 가능성 우려에도 불구하고, 백신 접종 확대, 유럽중앙은행(ECB)의 통화정책 결정문 중 일부 매파적 표현*으로 금리는 소폭 상승
 - * 1.21일 ECB는 통화정책회의에서 금융환경이 우호적일 경우 PEPP의 한도를 소진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을 성명문에 포함
 - * 유로존 서비스업 PMI는 경제활동 제한 영향으로 4개월 연속 기준선(50)을 하회(9월 48.0 → 10월 46.9 → 11월 41.7 → 12월 46.4)
- 영국 국채 10년물 금리는 13bp 상승(0.20% → 0.33%)
 - 미국 금리 상승 영향으로 영국 국채금리도 0.36%(1.13일)까지 상승하였으나, 이후 코로나 확산세 지속, 변이 바이러스 발견에 따른 경기 둔화 우려가 확대 되면서 0.33%로 소폭 하락
 - * 영국 코로나 일일 신규 확진자수는 1.9일 68,053명으로 최고치를 기록
 - * 1.4일 영국 정부는 코로나 재확산세 대응을 위해 3차 봉쇄조치(예: 2월 중순까지 초·중·고·대학교 수업을 원격수업으로 대체, 식당은 포장·배달만 허용)를 도입
- 일본 국채 10년물 금리는 2bp 상승 (0.03% → 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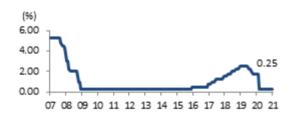
- 일본은행의 수익률곡선관리 정책(10년물 금리 목표수준 0% 내외)과 일본내 코로나 재확산으로 국채금리가 0% 내외에서 등락
 - * 일본 정부는 12.28일~1.31일까지 비즈니스 목적 이외의 외국인 신규 입국을 불허
 - * 일본 코로나 일일 신규 확진자수는 1.9일 7.855명으로 최고치 사상 최고치를 기록

해외금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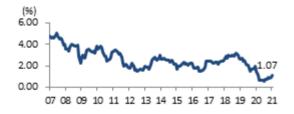
		단위	1.29일			변화폭(bp)		
		근위	종가	1개월 전	3개월 전	6개월 전	YTD	1년 전
미국	기준금리(기말)	%, bp	0.250	0	0	0	0	-150
미국	국채(10년, 기말)	%, bp	1.066	15	19	54	15	-44
독일	기준금리(기말)	%, bp	0.000	0	0	0	0	0
숙절	국채(10년, 기말)	%, bp	-0.518	5	11	1	5	-8
영국	기준금리(기말)	%, bp	0.100	0	0	0	0	-65
87	국채(10년, 기말)	%, bp	0.327	13	7	22	13	-20
일본	기준금리(기말)	%, bp	-0.100	0	0	0	0	0
= 	국채(10년, 기말)	%, bp	0.050	2	1	3	2	12

자료: Bloomberg,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연준 기준금리(월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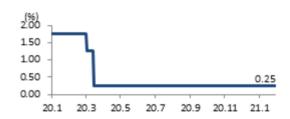


미국 국채 10년물(월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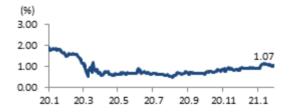


주: 2021.1.29일 기준, 자료: Bloombe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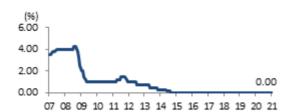
연준 기준금리(일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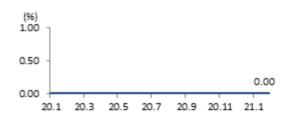
미국 국채 10년물(일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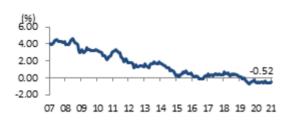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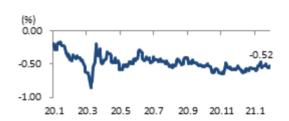
ECB 기준금리(일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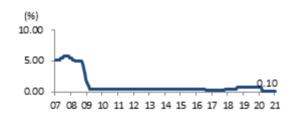
독일 국채 10년물(월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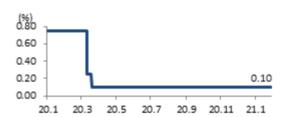
독일 국채 10년물(일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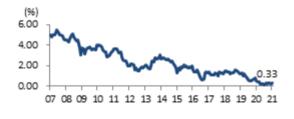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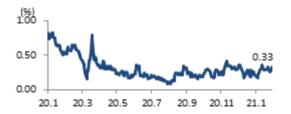
BOE 기준금리(일간)



영국 국채 10년물(월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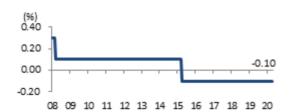


영국 국채 10년물(일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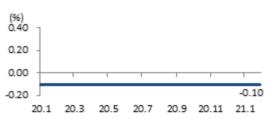


주: 2021.1.29일 기준, 자료: Bloombe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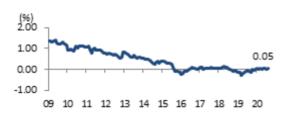
BOJ 기준금리(월간)



BOJ 기준금리(일간)



일본 국채 10년물(월간)



일본 국채 10년물(일간)



주: 2021.1.29일 기준, 자료: Bloomberg

1월중 환율 동향

■ 원/달러 환율은 전월말 대비 3.0% 상승(원화 약세, 1,087 → 1,119)

- 조지아주 선거(1.4일) 이후 블루웨이브 실현으로 미 장기금리 급등에 따른 글로벌 달러 강세, 글로벌 변이 바이러스 출현에 의한 위험 회피 심리가 원화절하 압력으로 작용
 - * 달러인덱스: 2020.12.31일 89.9 → 2021.1.28일 90.7

■ 위안/달러 환율은 1.5% 하락(위안화 강세, 6.53 → 6.43)

- 중국의 견조한 경기회복세, 바이든 신정부 출범 이전 중국 금융당국의 위안 화 절상 의지, 외국인 채권·주식투자자금 유입, 무역수지 흑자 지속으로 위안 화 강세가 지속
 - * 12월 차이신 서비스업 PMI는 56.3으로 8개월 연속 확장국면
 - * 상해종합지수: 2020.12.31일 3,473 → 2021.1.25일 3,569
 - * 중국의 12월 수출 증가율은 전년동월대비 13.5%로 7개월 연속 개선

■ 엔/달러 환율은 1.6% 상승(엔화 약세, 103.0 → 104.7)

-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에 의한 긴급사태 범위 확장,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 유지, 글로벌 달러 강세 기조하에서 엔화 약세 시현
 - * 1.7일 일본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세 심화로 수도권 일부 지역에 긴급사태를 선포하고 1.13일부터 외국인의 일본 입국을 제한
 - * BOJ는 12월 통화정책회의에서 경기부양을 위해 완화적인 통화정책기조(예: 자금융통 지원 특별프로그램 기간을 6개월 연장, 수익률곡선관리 정책)를 유지하기로 결정

■ 달러/유로 환율은 1.2% 하락(유로화 약세, 1.2280 → 1.2137)

- 유로화 강세 지속에 따른 ECB의 경계심리 강화로 유로가 약세로 전환하였으나 백신 보급에 의한 경기회복 기대로 유로화의 약세 폭이 제한
 - * 독일 ZEW 경기기대지수: 2020.12월 55.0 → 2021.1월 61.8
 - * 1.15일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는 유로화 강세가 물가에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유로화의 움직임을 주시할 것이라고 거듭 언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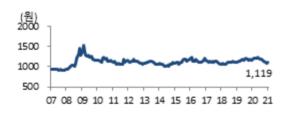
주요 화율

1# 22												
	1.29일 종가			변화 <mark>율</mark> (%)								
		1개월 전	3개월 전	6개월 전	YTD	1년 전						
원/달러(기말)	1,119	3.0	-1.4	-6.1	3.0	-6.1						
위안/달러(기말)	6.43	-1.5	-3.9	-7.8	-1.5	-7.0						
엔/달러(기말)	104.7	1.6	0.0	-1.1	1.6	-3.4						
달러/유로(기말)	1.2137	-1.2	4.2	3.0	-1.2	9.4						
원/위안(기말)	174.0	4.5	2.6	1.9	4.5	0.9						
원/100엔(기말)	1,069	1.3	-1.4	-5.0	1.3	-2.8						
원/유로(기말)	1,358	1.7	2.7	-3.2	1.7	2.7						
달러지수(기말)	90.6	0.7	-3.7	-3.0	0.7	-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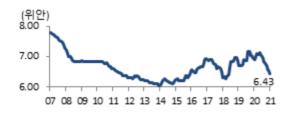
주: 변화율이 플러스(+)이면 미 달러화 대비 해당 통화의 절하(약세)를 의미. 다만, 달러/유로와 달러지수는 마이너스(-)일 경우 절하(약세)를 의미

자료: Bloomberg, 우리금융경영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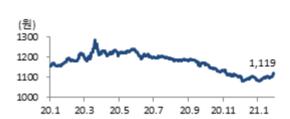


위안/달러(월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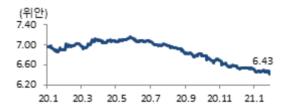


주: 2021.1.29일 기준, 자료: Bloombe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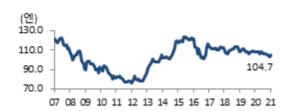
원/달러(일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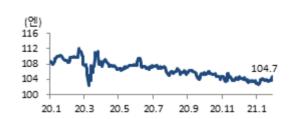
위안/달러(일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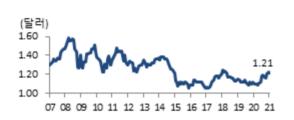
엔/달러(월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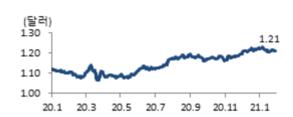
엔/달러(일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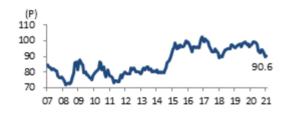
달러/유로(월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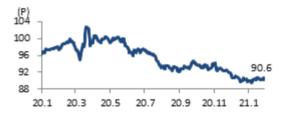
달러/유로(일간)



달러 인덱스(월간)



달러 인덱스(일간)



주: 2021.1.29일 기준, 자료: Bloomberg

1월중 주가지수 동향

- 코스피 지수는 전월말 대비 3.6% 상승(2,873 → 2,976)
 - 수출기업 중심의 기업실적 개선 기대, 개인투자자의 대규모 매수세(1월중 순매수 규모가 작년 한 해의 40% 수준)에 힘입어 사상 최고치(1.25일 3,209)를 경신했던 코스피 지수는 단기 급등에 따른 기관·외국인의 차익실현 매도 물량 출회로 상승폭이 축소
 - * 1월 중 주체별 코스피 순매수(조원): 개인 +22.3, 외국인 -5.2, 기관 -17.1
 - * 투자자 예탁금(조원): 2019.11월말 61.6 → 12월말 65.5 → 2020.1월말 68.3
- 국내 은행주는 6.3% 하락(코스피 대비 9.8%p 부진)
 - 저평가 매력에 따른 외국인의 순매수 전환에도 불구하고, 정책당국의 배당 축소 권고, 이익공유제 논의로 하나금융(-5.4%), 신한금융(-4.4%), KB금융 (-7.1%)과 우리금융(-9.6%)이 일제히 하락
 - * 1월 중 외국인은 하나(2,004), 신한(1,835), KB(1,585), 우리(65)를 모두 순매수
 - * 금융당국은 은행과 은행지주에 2021.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순이익의 20% 이내에서 배당을 실시하도록 공식 권고(1.28일)하였고, 정치권에서는 이익을 달성한 만큼 자금을 각출하라는 이익공유제에 대해 은행권의 참여를 논의 중인 것으로 관측
 - 글로벌 Top 50 은행주는 1.6% 하락(아시아 Top 10 은행주는 2.3% 상승)
- 코스닥 지수는 4.1% 하락(968 → 929)
 - 한국형 뉴딜과 수출 호조에 따른 바이오·반도체·IT 기업의 실적 개선 기대, 풍부한 시중 유동성을 바탕으로 사상 최고치(1.25일 999)를 경신한 코스닥 지수는 외국인·기관의 매도세로 인해 반락
 - * 1월 중 주체별 코스닥 순매수(조원): 개인 +3.5, 외국인 -0.6, 기관 -2.9
- 선진국(MSCI DM) 증시는 1.1% 낮아졌고, 신흥국(MSCI EM)은 3.0% 상승
 - 미국(-1.1%), 유럽(-2.0%) 증시는 하락한 반면, 일본(+0.8%), 중국(+0.3) 증 시는 소폭 상승

■ S&P500 지수는 1.1% 하락(3,756 → 3,714)

- 바이든 행정부 출범(1.20일)에 따른 재정지출 확대·백신공급 가속화 기대, 미국 기업들의 4분기 기업실적 개선으로 신고점을 기록(1.25일 3,855)했으나 이후 단기 과열에 대한 우려로 반락
 - * 바이든 대통령은 1.9조 달러의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발표(1.14일)하고, 취임 이후 19 건의 행정명령에 서명(1.25일 기준)하는 등 코로나19 극복과 경기회복세 지원을 위한 강력한 정책 의지를 표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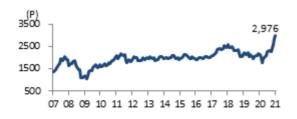
주요 주가

			<u> </u>	·			
					변화 율 (%)		
			1개월 전	3개월 전	6개월 전	YTD	1년 전
국내	KOSPI	2,976	3.6	31.3	32.3	3.6	40.5
증시	KOSDAQ	929	-4.1	17.2	13.9	-4.1	44.6
	(선진국)MSCI DM	2,662	-1.1	16.1	15.5	-1.1	13.6
	(신흥국)MSCI EM	1,330	3.0	20.5	23.2	3.0	25.2
해외	(미국)S&P500	3,714	-1.1	13.6	13.5	-1.1	15.2
증시	(일본)Nikkei225	27,663	0.8	20.4	27.4	0.8	19.2
	(유럽)Eurostoxx50	3,481	-2.0	17.7	9.7	-2.0	-4.4
	(중국)상해종합지수	3,483	0.3	8.0	5.2	0.3	17.0
	Global Top 50 ¹⁾	-	-1.6	22.3	17.2	-1.6	-14.7
	Asia Top 10	-	2.3	11.6	11.7	2.3	-11.6
o al ス	우리금융	8,800	-9.6	-1.0	3.5	-9.6	-13.3
은행주	KB금융	40,300	-7.1	0.5	14.3	-7.1	-8.3
	신한금융	30,650	-4.4	1.0	1.8	-4.4	-21.7
	하나금융	32,650	-5.4	7.4	10.7	-5.4	-1.7

주: 1)글로벌 은행 순위는 `18년 Tier1 자본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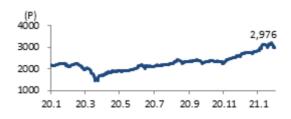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우리금융경영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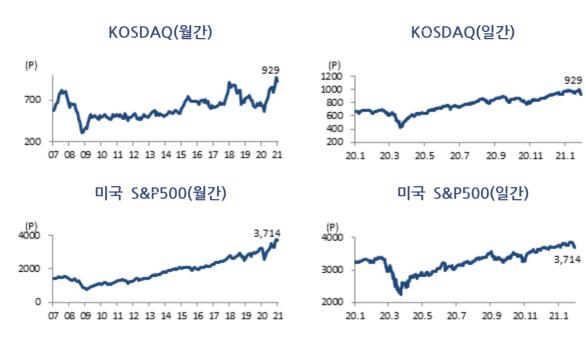
KOSPI(월간)



주: 2021.1.29일 기준, 자료: Bloomberg

KOSPI(일간)





주: 2021.1.29일 기준, 자료: Bloomberg

* 동 보고서는 연구원들이 신뢰할만한 자료와 정보를 바탕으로 금융시장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배포되는 조사분석 자료입니다. 동 보고서에 수록된 정보(시황에 대한 예측 또는 금융시장지표 전망 등)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 시에는 개인의 판단과 책임하에 결정하시기 바랍니다.